

미국 NACTO-GDCI, 어린이를 위한 거리 디자인 원칙 제안

<https://www.archdaily.com/945350/10-actions-to-improve-streets-for-children>

<https://globaldesigningcities.org/publication/designing-streets-for-kids/>

<https://globaldesigningcities.org/2020/08/06/press-release-dsfk/>

미국 전국도시교통담당관협회(NACTO)의 프로그램 Global Designing Cities Initiative에서 지난 8월 6일 글로벌 거리 디자인 가이드(GSDG)의 부록인 '어린이를 위한 거리 디자인(Designing Streets for Kids)'을 선보였다. 이는 보행자이면서도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자로서의 어린이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췄으며, 어린이 친화적인 설계를 통해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95cm 높이에서 생각해 보기: 거리 사용자로서의 어린이와 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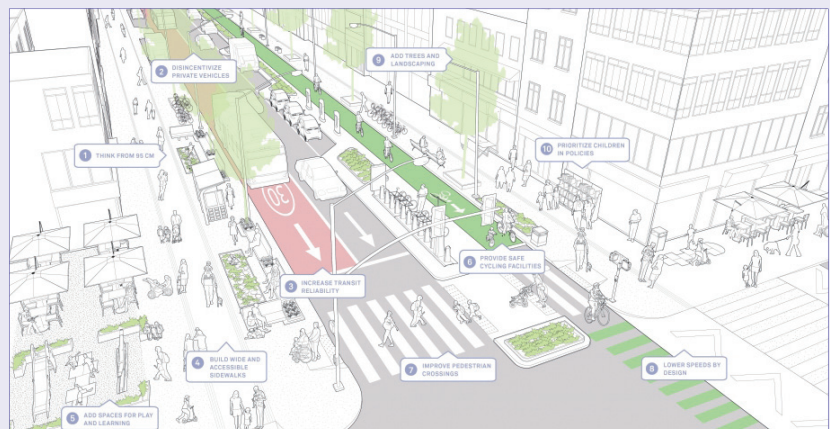
어린이들을 위한 거리를 설계하는 것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린이를 돌보는 노인과 임산부 등 어린이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어른을 포함해야 한다.

적절한 속도를 위한 설계

빠른 속도로 운전할 경우 운전자의 주변 시야를 좁히고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시속 30km 이하의 속도제한 정책과 함께 차선폭을 3m 이하로 줄이고, 교차로 설계를 단순화하는 등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도로 설계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 친화적 정류장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접근이 쉬우면서도 기다리는 동안 예술과 놀이, 게임 등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끄는 요소를 담아 정류장을 설계해야 한다.



©NACTO-GDCI

어린이 친화적 거리설계를 위한 10가지 원칙

출처: NACTO-GDCI 홈페이지 <https://globaldesigningcities.org/2020/08/06/press-release-dsfk/> (검색일 : 2020. 9. 9.)

© 광주시민신문



건축회사 MVRDV와 광주 서석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설계한
광주비엔날레의 자동차 통행금지 거리

©City of Tirana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는 시속 20km로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자전거 통행량이 늘어났다.

접근이 편리한 넓은 보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는 접근성은 물론 여러 사람과 무리 지어 걸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환한 조명, 적절한 산책 공간, 표지판 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 지역은 최소 1.8~2.4m의 폭을, 보행량이 많은 도심 또는 스쿨존 등은 2.4~4.5m의 폭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한 자전거 도로

하루 평균 6,000대 이상의 통행량을 보이는 시속 30km 이상 도로에서는 완전히 보호된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자동차 도로와 주차 공간과는 분리된다. 하루 평균 1,000~2,000대 수준의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는 자동차 속도제한을 통해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자전거 도로를 제안할 수 있다.

횡단보도 개선

횡단보도는 가능한 한 짧고,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보행속도가 느린 어린이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고려해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교통섬이나 넓은 연석 공간 등을 제공해야 한다.

나무와 풍경 더하기

녹지공간은 대기오염물질을 해소시킬 뿐 아니라 열섬효과를 줄여준다. 또 다양한 나무들은 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장려하여 어린이의 두뇌발달과 인지 능력,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